

An aerial photograph of a dense evergreen forest, likely a spruce or fir forest, with many tall, pointed trees packed closely together. The lighting is somewhat dim, giving the forest a dark, textured appearance.

AMIC & **PETRABRIDGE**
법무법인 아믹 PARTNERS

AMIC LAW & PETRABRIDGE PARTNERS

Newsletter

Volume 01

January 5, 2026

2026년 M&A Outlook

- Global 주요 IB, Consulting Firm의 View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아믹 x 페트라브릿지파트너스 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분들께 2026년 M&A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관망세를 뒤로하고, 2026년 M&A 시장은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1년 슈퍼사이클 이후 지연되었던 Mega-Deal의 재개와 더불어, 그 온기가 중형, 중소형 시장으로 전이되는 낙수 효과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기관들이 주목하는 2026년 M&A 시장의 5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담한 사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업들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Private Debt의 구조적 확장: 유연한 인수금융, 대출 상품의 보편화

풍부한 유동성: 금리 안정화 및 드라이 파우더 소진 압력 가중

세컨더리 시장의 활성화: 사모펀드간 자산 이동 및 유동성 확보 전략의 확산

AI 중심의 산업 재편: 기술 확보를 위한 Scope Deal의 급증

또한, 국내 시장 역시 '국민성장펀드'의 공식 출범으로 M&A 시장 내 유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의 M&A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기관들의 2026년 M&A 전망을 기관별로 요약(Gemini, GPT, Claude등을 사용하여 요약하고, 당사가 리뷰, 윤문, 검토함)해 전달 드립니다.

2026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골드만 삭스: “Think Big, Build Bigger” (대담한 사고, 더 큰 구축)

출처: 골드만삭스 공식 보고서: 2026 M&A Outlook - *Thinking Big, Building Bigger* (2025년 12월 18일 발표)

골드만삭스는 2026년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기술(Technology), 세계화(Globalization), 야망(Ambition)을 제시했습니다. M&A 부문의 글로벌 공동대표인 스테판 펠드고이스(Stephan Feldgoise)는 “2026년은 AI가 단순한 경제적 테마를 넘어 지정학적 지형까지 바꾸는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며, 기술 혁신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6년 M&A 시장이 단순한 경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 재편의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함축합니다.

- M&A 슈퍼사이클의 도래: 2025년 하반기에 마련된 활발한 딜(make) 모멘텀이 2026년까지 이어지면서, 2021년 기록적 호황에 필적하는 글로벌 M&A 거래 규모가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M&A 거래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러한 슈퍼사이클은 개방적인 자금조달 환경, 기업들의 전략적 인수 합병 활동 증가, 그리고 사모펀드 등의 재무적 투자자 복귀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안정과 유동성 확대가 결합되면서, 이전에 지연됐던 대형 딜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고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 모두에서 대형 거래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Real Assets × AI: 골드만삭스가 특히 주목한 포인트는 AI 기술 혁신이 ‘실물 자산’ 분야까지 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M&A 시장의 중심에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나 IT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시설, 상업용 부동산, 발전소와 송전망 등 인프라 자산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운용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이러한 인프라 및 설비 분야의 M&A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현상을 가리켜 “인프라 투자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모자본의 힘”이라고 표현하며, 막대한 사모자본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수합병 물결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사모펀드 자금이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같은 실물 인프라 자산 인수에 나서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행동주의의 진화: 행동주의 투자펀드들의 규모가 2026년에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영진에게 기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명확성”과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M&A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지분을 확보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업부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사업을 매각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활발한 M&A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행동주의 투자자

들의 압력으로 기업들이 사업 재편과 분할, 합병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이는 전체 M&A 거래 증가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략적 조언: 골드만삭스는 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기업만이 혁신이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시기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산업 구도를 급변시키는 상황에서, 자본을 보유한 기업들은 과감한 결단으로 미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상상(Reimagine)하고, 필요한 기술이나 자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M&A 전략을 취해야만 혁신의 파고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즉, 2026년은 기업들이 “Think Big, Build Bigger”라는 슬로건처럼 규모와 범위를 동시에 키우면서 미래를 대비할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모건스탠리: “The Broadening Rebound” (광범위한 회복)

출처: 모건스탠리 공식 전망: 2026년 시장 및 투자 전망 (2025년 12월 발표)

모건스탠리는 2026년 M&A 시장을 “낙수 효과(Broadening Rebound)”라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소수의 초대형 거래만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2026년에는 산업 전반과 다양한 규모의 거래로 폭넓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는 2025년까지는 일부 메가딜이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중형 및 소규모 딜까지 전 산업에 걸쳐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거래 활동이 저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억눌려 있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M&A 활력이 폭넓게 퍼져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구체적 거래 증가 전망: 모건스탠리는 2026년 전 세계 M&A 발표 건수(Announced Deals)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고, 완료 건수(Completed Deals)도 전년 대비 약 2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관망세를 보였던 사모펀드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시장에 귀환하면서 거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 사모펀드들의 딜 참여와 기업매각 시도가 늘어났는데, 2026년에는 이러한 활동 재개가 M&A 건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모건스탠리는 또한 현재 글로벌 M&A 거래 규모가 GDP 대비 장기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026~2027년에 걸쳐 거래 활동이 정상 추세로 회복되며 장기 평균을 향해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크레딧 시장의 핵심 역할: 신용시장(Credit)이 2026년 M&A 회복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2026년에 신용거래(기업대출 및 채권 등) 규모가 약 20% 성장하여 풍부한 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I 시대의 데이터센터 구축 붐에 맞춰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수단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용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기업들의 인수금융 조달 비용을 낮

추어 M&A 추진을 한층 수월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태도 완화로 기업들의 차입 여력이 개선되면,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을 비롯한 차입 기반 M&A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크레딧이 M&A 부활의 촉매”가 되어,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이 2026년 인수합병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섹터별 전망과 밸류에이션:**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 등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향후 주가와 M&A 거래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은 “이익 전망치 상향(Profit Expectations)”에 달려 있다고 모건스탠리는 분석합니다. 즉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져야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을 정당화하며 더 높은 거래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 회복과 팬데믹 기간 위축됐던 딜 볼륨 정상화로 인한 비용 효율 개선에 주목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 이익 전망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M&A 시장에서는 기술, 통신, 헬스케어 등 고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쇄하려면 실질 이익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익창출력이 불확실한 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보다 선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IB업계 전망 및 개별 하우스 평가:** 모건스탠리는 2026년 글로벌 M&A 활성화에 따라 투자은행 업계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개별 하우스별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계 중견 IB인 제퍼리스(Jefferies)에 대해서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하며, 일본 SMBC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에버코어(Evercore)에 대해서는 주가가 2025년 크게 상승하여 밸류에이션이 부담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투자의견을 ‘중립(Equal-weight)’ 또는 하향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IB 업계 내에서도 딜 파이프라인과 파트너십 역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모건스탠리는 M&A 사이클의 수혜를 크게 입을 하우스를 선별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전반의 리스크로는 노동시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이 꼽혔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 CEO들의 자신감을 약화시켜 딜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 “The AI Supercycle & Mega Deals” (AI 슈퍼사이클과 메가딜)

출처: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2026 시장 전망 (2025년 12월 발표)

J.P.모건은 2026년을 “AI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 붐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AI의 수혜를 입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극단적 격차, 즉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J.P.모건은 이처럼 AI를 둘러싼 다층적인 양극화가 2026년 금융시장과 M&A 트렌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술 주도 성장 국면에서 규모의 경제(Scale)를 확보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대형 거래를 이끌 것이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메가딜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메가딜의 시대 지속: 2025년에 이미 전당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인수합병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J.P.모건은 이 메가딜 추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경쟁과 공급망 강화 등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투자 여력과 글로벌 규모를 갖춘 기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덩치 큰 기업들끼리의 결합이 더욱 빈번해져, 산업 재편을 위한 초대형 M&A가 2026년에도 속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J.P.모건은 “기술 투자와 공급망 복원력을 감당하려면 규모가 필수”라며, 주요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빅딜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분야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이 논의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간 크로스보더 메가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PO 시장의 부활: 한동안 침체되었던 기업공개(IPO) 시장도 2026년에 본격적인 부활을 맞을 전망입니다. J.P.모건은 2026년 전 세계 IPO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여, 거래 건수나 조달 금액 면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TMT(기술·미디어·통신)와 헬스케어 섹터가 신규 상장의 약 60%를 차지하며 IPO 활동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기대가 높은 분야들에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본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IPO 재개의 배경으로는 주식시장 활황과 투자자 위험선호 회복,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엑시트(exit) 창구로서 IPO 수요 증가 등이 지목됩니다. J.P.모건은 “2024~2025년에 미뤄졌던 유망 기업들의 IPO가 2026년 물밀듯 재개될 것”이라며 기술·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신규 상장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미국 예외주의의 강화: J.P.모건은 2026년에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AI 투자 붐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연준의 비교적 완화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맞물려, 미국이 전 세계 투자자금의 최대 목적지로 부상한다는 관측입니다. 이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인바운드 투자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달러 약세와 미국 내 성장기회의 매력으로 인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및 미국 진출 M&A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미국 중심 자금 쏠림은 비(非)미국 시장의 상대적 약세를 초래할 수 있는데, J.P.모건은 투자자들이 미국 편중 현상에 주의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핵심 리스크 요인: J.P.모건은 동시에 2026년 M&A 시장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 요소들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거론된 것은 “AI 실망 매물” 가능성입니다. 즉 거대한 AI 관련 투자가 실제 기업 이익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 실망 매물(매도세)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꺾이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및 기업가치가 급락하면서 M&A 거래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째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을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고착된다면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제한되어 자금조달 비용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J.P.모건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항상 염두에 두고 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AI 붐에 대한 냉정한 검증”과 거시경제 변수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씨티그룹: “Liquidity Support & Private Credit” (유동성 지원과 프라이빗 크레딧)

출처: 씨티글로벌 인사이트: *How to Navigate 2026* (리서치 팟캐스트) (2025년 12월 9일)

씨티그룹은 2026년 M&A 시장의 숨은 조력자로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환경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M&A 활동을 강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연준(Fed)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회하면 금융시장의 혈맥을 뚫듯 자금 흐름이 원활해져, 2026년에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Cit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저금리 유동성 시대의 재도래가 M&A 시장의 중요한 숨은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자금환경 개선: Citi는 미 연준이 2025년까지 진행해온 양적 긴축(QT) 기조를 마무리하고 2026년 초부터는 소규모 자산매입(미니 QE)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Citi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연준이 조기 금리인하뿐 아니라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를 시사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를 완화시켜 기업들의 M&A 레버리지 활용 능력을 크게 높여줄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은행들도 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게 되고, 이는 인수합병을 위한 차입 조달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Citi는 2026년에 이러한 완화적 유동성 세팅과 더불어 금융규제 완화, 건전한 은행 재무구조가 어우러져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대출잔액 대비 예금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만큼 추가 대출 여력이 충분하며, 금리가 내리면 늘어난 대출공급이 M&A 시장에 긍정적 자극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프라이빗 크레딧의 건재: 일각에서 우려해온 것과 달리, Citi는 사모 대출(Private Credit) 부문이 2026년에도 견조한 자금 공급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 등 비은행권 대체대출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은 양호하며, 약세장에서도 큰 부실 없이 버텼다는 점을 Citi는 강조합니다. 2026년에도 은행 대출이 미치지 못하는 중견·대기업들의 M&A 자금줄로서 이러한 사모 대출이 핵심 역할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Citi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다”며, 은행권이 엄격한 규제로 대출을 꺼리는 틈을 메워 유연한 자본을 공급하는

BDC, 부테크 대출펀드들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량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큰 부실 없이도 높은 수익을 내온 사모 대출 업권이 앞으로도 성장 여력을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2026년 M&A 시장에서 레버리지 파이낸싱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거래 성사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비: Citi는 2026년 AI 인프라 투자 및 친환경 전력망 구축 붐이 산업용 원자재 수요 폭증으로 이어져 일부 원자재 부문에 슈퍼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구리와 알루미늄 등의 금속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망과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이어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곧바로 수요 급증으로 연결될 자원입니다. Citi는 이 같은 흐름을 “천연자원 플레이(Natural Resource Plays)”라고 명명하며,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원자재 및 관련 에너지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M&A 측면에서도 이러한 광물·에너지 자산을 확보하려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25년 하반기에 글로벌 광업 메이저들이 전력금속(minerals for power) 스타트업을 인수한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2026년에는 국가 간 핵심 자원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며 해당 분야에서 크고 작은 M&A와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Citi는 요약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 풍부한 민간대출 + 원자재 초과수요”라는 삼박자가 2026년 인수합병 시장에 긍정적 순풍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 “Secondary Market Surge” (세컨더리 시장의 급부상)

출처: Barclays Private Bank - *Private markets in a fragmentation era* (2025년 11월 17일)

바클레이즈는 2026년 프라이빗 마켓(비상장 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세컨더리” 시장을 지목했습니다. 세컨더리 거래란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펀드 만기를 연장하여 지속 보유하는 등의 이차거래 시장을 뜻합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몇 년간 LP(출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팔고 싶어하는 니즈와 GP(운용사)들이 우량 자산을 더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맞물리면서 세컨더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6년에 더욱 가속화되어, 세컨더리 시장이 사모투자 생태계의 유희유를 넘어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이중 트랙(Dual-Track) 전략 부상: 바클레이즈는 세컨더리 시장의 급성장을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LP 주도의 지분 매각(LP-led secondary)이고, 다른 하나는 GP 주도의 컨티뉴에이션 펀드(GP-led secondary)입니다. 2026년에는 LP 주도 거래 - 펀드 출자자들이 만기 전에 자신의 지분을 세컨더리 펀드나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거래 - 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GP 주도 거래 - 운용사가 기존 펀드의 우량 자산을 새 펀드로 이월(Continuation Vehicle)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추가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구조 - 도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바클레이

즈는 이 “듀얼 트랙”이 모두 활발해지면서 세컨더리 시장이 사모펀드 업계의 유동성 공급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류 투자 전략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출자금 회수나 펀드 연장 같은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졌던 세컨더리 거래가 이제는 사모투자 업계의 핵심 거래 흐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2026년 M&A 시장에서도 대형 사모펀드간 포트폴리오 매각/인수 거래, 컨티뉴이션 펀드 설립을 위한 GP간 협업 딜 등 새로운 딜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프라이빗 부채 시장의 순풍: 바클레이즈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하 기조가 2026년 프라이빗 부채(Private Debt) 시장에 본격적으로 순풍(tailwind)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Leveraged M&A)이 용이해집니다. 이미 2025년 말부터 미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에 착수하면서 기업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그 효과가 본격 나타나 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부채 활용 M&A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즈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온 프라이빗 부채 펀드들이 낮아진 금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딜 파이낸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M&A 거래 구조화에 있어서 부채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프라이빗 대출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금리하락이라는 순풍을 탄 사모 대출 시장이 2026년 M&A 활동 증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엑시트 시장의 회복: 바클레이즈는 2025년 3분기까지 사모펀드들의 엑시트 규모(투자 회수)가 모든 카테고리에서 반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PO를 통한 공개시장 매각, 전략적 매각(trade sale), 2차 매각 등 모든 형태의 출구 거래가 2025년 들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2022~2023년 시장 침체로 막혀 있던 엑시트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바클레이즈는 2026년이 이러한 출구 시장 회복세가 가속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사모펀드들이 보유 자산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 자금을 다시 신규 투자(M&A)에 투입하는 선순환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2025년에 미뤄졌던 기업공개(IPO)들이 2026년에 대거 성사되고, 전략적 매각이나 다른 펀드로의 매각도 활발해지면서 사모자본의 회수 및 재투자 사이클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모펀드들이 새로운 투자 펀드 구성과 추가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2026년 전체 M&A 거래량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이처럼 세컨더리 시장의 부상, 낮아진 금리의 순풍, 출구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2026년을 사모자본 중심의 M&A 활황기로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베인앤드컴퍼니: “Scope over Scale” (규모보다 범위)

출처: 베인앤드컴퍼니 브리프: 2025년 M&A 회고 및 시사점 (*Behind the Great Rebound*) (2025년 12월 10일)

베인앤드컴퍼니는 2026년을 맞아 M&A를 하는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과거에는 인수합병의 주된 동기가 기업 규모 확대(Scale)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업 범위 확장(Scope)이 1순위 목표로 부상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 M&A 시장에서는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거래보다 새로운 기능·기술·시장 진출을 노린 거래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베인은 이를 상징적으로 “Scope over Scale(규모보다 범위)”라는 테마로 명명했습니다.

- Scope 딜의 사상 최고 비중: 베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M&A 동향을 살펴볼 때, 거래가액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 딜 가운데 “범위 확장형 딜”의 비중이 6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범위 확장형 딜이란 인수 기업이 새로운 제품 라인이나 기술, 시장 진입을 위해 타겟을 인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60%라는 수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들이 단순히 경쟁사를 합병하여 몸집을 불리는 대신, 새로운 역량을 획득하는 쪽에 M&A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인은 기업들이 저성장 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 조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컨대 전통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거나, 오프라인 유통사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들이는 등 이종 산업간 결합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Scope 딜의 급증은 기업들이 자신의 경계를 넓혀 포트폴리오를 재창조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강해졌음을 의미하며, 2026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M&A의 패러다임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베인은 전망했습니다.
- AI 관련 딜의 진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현재까지 테크 분야 M&A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베인은 이 숫자를 제시하며 AI를 비롯한 기술 분야 딜의 폭발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인수자(일반 기업)의 75%가 M&A 검토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AI 역량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AI) 역량이 없는 기업은 매각 자체가 어렵거나, 거래 가격에서 큰 디스카운트(불이익)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즉 AI 기술 보유 여부가 일종의 딜 브레이커(Deal Breaker)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인은 2026년 M&A 시장에서 “모든 것이 AI로 통한다”고 표현하며, 인수 대상 기업이 AI를 접목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잠재력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매각을 준비할 때 AI 요소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인수자는 AI 기술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중심의 딜메이킹이 강화됨에 따라, 2026년에는 AI 관련 스타트업 인수나 전통 기업의 AI 기업 인수가 한층 늘어나고, 딜 구조에도 AI 인력 확보나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는 등 M&A의 질적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상: 베인은 지역별 M&A 흐름에서 중국의 주춤함과 기타 아시아 지역의 약진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글로벌 M&A 시장의 큰 손 중 하나였던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정책 이슈로 대형 딜이 줄어들었지만, 그 공백을 일본, 인도, 한국 등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메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의 헬스케어·의료기술

(MedTech) 섹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2026년에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의료기술과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제약·의료 기업들의 협업이나 인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한국의 몇몇 메디테크 기업에 해외 전략적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2026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선진국들의 기술 기업 인수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엔저 상황으로 해외 자본에 매력적인 자산이 많고, 인도는 높은 성장률로 국내 시장 확대를 노린 M&A가 활발할 것이라고 베인은 분석했습니다. 요컨대 “차이나+1” 전략이 M&A에서도 나타나 중국 이외 아시아로의 투자 다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며, 이는 2026년 글로벌 딜 흐름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NTACT US

법무법인 아믹

임 영 훈 대표변호사	yhlim@amic.kr
박 병 준 대표변호사	bj.park@amic.kr
서 지 원 대표변호사	jwsuh@amic.kr

주식회사 페트라브릿지파트너스

김 양 태 대표이사	ytkim@amic.kr
조 우 상 이사	wsjo@amic.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9 층

Tel. 02 6953 9930
Fax. 02 6442 9930
Mail. amic@amic.kr